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15.(목) 12:00 < 6.15.(목) 석간 > | 배포 2023. 6. 14.(수)

원전기여 확대로 올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적 전망

- 태양광발전의 변동성, 때 이른 더위, 설비고장 등 변수에 철저 대비 -

올 여름철은 원전의 공급능력이 지난해보다 2.8GW 늘어나면서 최대 공급능력이 역대 최고인 106.4GW까지 올라가 전력 수급이 안정적일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처럼 때 이른 더위로 7월 초순에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예외적인 기상 상황으로 전력수요는 많지만, 태양광발전이 부진한 경우 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할 예정이다.

그 목적으로 전력 수급 대책 기간을 예년보다 1주일 이른 6월 5주 차에 시작하기로 했으며, 최대 전력수요 전망에 남부지역 태양광 부진 등 예외적인 기상 상황까지 반영하여 전망치를 제시했다. 정부가 전망한 2023년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 전망 시 92.7GW, 예외적인 기상 상황인 상한 전망 시는 97.8GW까지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거나 여러 발전기가 고장 나는 만일의 경우에도 전력 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수요감축(DR), 석탄 발전 상향 운전, 시험 운전 활용 등의 예비 자원도 7.6GW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봄철에 태양광이 밀집된 호남지역에서 계통 고장에 선제 대응하고자 일부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했던 것처럼, 이번 여름철에도 전력수요가 낮고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 제어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만반의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캐시백(적립금 환급)을 통해 요금 부담 경감과 함께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은 실시간 사용량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전력수요 집중 시간대에 냉방기 가동 중지를 독려하는 등 여름철 민간·공공 전반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전기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긴장감을 느끼고 수급관리에 임하겠다"라고 강조하고, "국민께서도 올 여름철 지원이 확대된 에너지 캐시백(적립금 환급) 가입, '1kWh 줄이기' 동참을 통해 냉방비 폭탄 없는 현명한 에너지 소비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이가영 (044-203-3887)

참고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주요 내용

1. 전력수급 전망

□ (수요) 금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최대수요**(93.0GW, '22.7.7)와 **유사하거나 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 최근 여름철 최대수요(GW) : ('19) 90.3, ('20) 89.1, ('21) 91.1, ('22) 93.0

○ **피크시기**는 **8월 2주 평일 17시경 92.7 ~ 97.8GW*** **내외 예상**

* '18.8월 태풍 '룸비아' 기상조건 가정 : 남부는 흐리고 중부는 맑아 태양광↓ & 냉방수요↑

□ (공급) **전년 피크 공급능력**(99.7GW)**대비 6.7GW 증가, 최대 106.4GW**

※ 최근 여름철 피크시 공급능력(GW) : ('18) 99.6, ('19) 96.4, ('20) 98.0, ('21) 100.7

○ **신한울#1** 가동('22.12), **고장·정비물량 감소** 등 **원전 가동 증가**

* 원전 공급능력(GW) : ('22년 피크(7.7)) 20.5 → ('23.8월 2주) 23.3 **(2.8GW↑)**

○ **태양광연계 ESS 충방전시간 변경**(6.1~)을 통해 피크시간대(17~18시) **0.5GW 이상 공급능력 추가 확보**

□ (예비력) **8월 2주 상한전망 시현시 8.6GW, 기준전망시 13.7GW 전망**

2. 전력수급 대책

□ (수요관리) **민간은 인센티브 강화, 공공부문 사용량 관리**로 e절약 유도

○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 강화** 및 **행동·인식변화 캠페인** 추진, **공공기관 실시간 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사용량 관리 강화**

* 최근 피크시간대 변화를 감안하여 집중 절전시간대 변경 : 14~17시 → 16시 30분~17시 30분

○ **취약계층·시설 냉방비 부담 완화** 위한 **효율개선 지원** 등 **지속 확대**

□ (설비점검) **장·차관 현장점검***, **전력설비 예방정비, 태풍 등 재난 대비 사전점검** 등 통해 불시고장으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 사전 방지

* 장관(6.15, 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 2차관(6.20, 동서울변전소) 등

□ (계통안정화) **재생e 발전량 증가**로 특정지역 계통에서 **발전량이 지역수요 + 송전량을 초과하면 고장파급에 대비한 대책 시행**

□ (추가 예비자원) 확보된 **최대 7.6GW 자원**을 예비력 단계별로 사용

* 수요감축(DR), 석탄발전 출력상향, 전압 하향 조정 등 활용

◈ **6.26~9.15을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급상황실' 운영, 올 여름철 국민생활에 불편 없도록 안정적 수급관리에 총력**

* 기상패턴 변화로 전년대비 대책기간 2주 확대 : 조기 돌입(1주) + 종료기간 연장(1주)